

난계 오영수의 유기론적 문학사상에 관한 시론(試論)

구 모 룡*

차 례

1. 서론
2. 본론
2.1. 고향과 근대—문학적 전기
2.2. 유기론의 계보
2.3. 반근대주의와 자연의 이념
2.4. 시적 비전과 내부성의 장소
3. 결론

1. 서론

그 동안 난계(蘭溪) 오영수에 대한 연구는 그의 소설이 지닌 서정적 특성과 반근대주의적 자연주의에 집중되었다.¹⁾ 최근 들어 그의 문학을 생태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kmr@hhu.ac.kr

1) 이 글은 “오영수 탄생 100주년 기념 세미나”(오영수기념사업회와 현대소설학회 공동주최)에서 구두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탈근대’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오영수 문학을 재해석하는 틀을 찾고자 한 시론이다. 따라서 텍스트 해석에 치중하지 않았으며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전기적 사실에 대한 실증은 과제로 두었다. 논문 심사과정에서 텍스트 해석의

주의 비평으로 읽으려는 경향²⁾이 커졌는데, 이는 생태환경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난계 연구가 새롭게 전개될 것임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서 난계 문학에 내재한 자연주의와 반근대주의가 탈근대—근대 극복이라는 재맥락화의 계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난계 문학 다시 읽기를 위한 시론적(試論的)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난계문학의 출발을 되돌아보고 그의 문학사상 형성 과정과 계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난계문학의 기저에는 식민 지배와 가난, 전쟁(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이라는 폭력적 세계상이 놓여 있고 이에 반립(反立)하는 작가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다. 그의 문학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반근대, 반도시, 고향, 인정(人情) 공동체, 자연, 생명을 지향한다. 사상적으로 그는 김동리, 조지훈, 조연현 등이 제시한 유기론(organology)의 계보에 속하지만³⁾ 말년에 귀농을 실천하여 문학과 삶

미비를 지적한 심사자가 있으나 이 논문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지 못해 기존의 해석이나 필자의 해석 결과의 요약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그 동안 오영수 소설에 대한 텍스트 해석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향존하는 연구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논리의 충위를 고려하지 않고 이론화를 위시한, 다양한 경향의 연구에 텍스트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강제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물론 이 논문에 가설적인 대목이 있고 이에 대한 전거가 약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가능한 반영하되 미비한 내용—1)김범부와 김동리, 조연현, 오영수의 영향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 2)오영수 소설에서의 장소와 공간 분석 등—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번 논문은, 이와 같은 주제를 충실하게 담아내기에는 작은 그릇[시론]에 불과하다.

그 동안 전개된 오영수 연구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강언, 『오영수연구』, 『국어국문학연구』(청구대, 1961); 송하섭, 『한국현대소설의 서정성 연구』(단국대 박사논문, 1981); 김영화, 『오영수의 소설연구』, 『제주대논문집』24집(제주대, 1984); 이재인, 『오영수문학연구』(문예출판사, 2000); 김인호, 『오영수 소설에 나타난 '향수'의 미학』, 『한민족어문학』39호(한민족어문학회, 2001); 문경주, 『오영수 소설 연구』(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오태호, 『오영수 소설에 나타난 서정적 리얼리즘 연구』, 『국제어문』48호(국제어문학회, 2010) 등.

2) 변혜정, 『오영수 소설의 생태의식 연구』(서강대 석사논문, 2003); 우찬제, 『'총알'과 '머루'의 상호텍스트성』, 『문학과 환경』8권 1호(문학과환경학회, 2009); 임명진, 『작가 오영수의 생태적 상상력』, 『한국언어문학』70호(한국언어문학학회, 2009) 등.

3) 김윤식은 오영수를 김동리가 주축이 된 '문협정통파' 혹은 생의 구경적 탐구 그룹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그는 김동리와 차별되는 오영수의 가능성에 대해

의 비분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김동리 등의 문학 내적 유기론과 다른 맥락으로 생태주의 비평의 대상이 된다.⁴⁾

난계 문학이 지닌 반근대주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근대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미적 근대성의 아류로 비판될 소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그가 농적(農的) 세계관에 기반한 세계를 실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은 미적 근대성의 아류가 아니라 생태주의의 선취로 재평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난계 문학이 제시하고 있는 내부성의 장소 감각⁵⁾을 새롭게 주목하고자 한다. 오영수의 문학적 역정은 어떤 의미에서 모더니즘의 무장소화에 저항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의 문학은 고향이나 존재의 내부성을 지각하게 하는 장소를 지향하고 공동체적인 경험의 세계를 지속하려 한다. 그는 고향이 부여한 영속적이고 신화적인 장소의 경험을 간직하면서 도시 공간의 낯섦과 비인간화를 견디면서 마침내 참된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제시한다.

난계의 유기론적 문학사상을 고찰하는 일은 난계 문학의 문학사적 위치를 조정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선부르게 이 글이 이러한 의도를 구체화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난계의 문학적 전기를 통하여 사상적 기원을 탐문하고 그의 문학사상이 지닌 사적 맥락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그의 문학사상이 지닌 의미와 의의를 따지는 한편 이것이 창작의 개별성으로 발현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 주목하지 않는다. 김윤식, 『김윤식소설론집』(동서문화사, 1991), p. 20.

4) 유기론과 생태주의는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 하지만 유기론이 곧 생태주의인 것은 아니다. 생태주의는 환경 위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논리로 일정 부분 기존의 유기론과 연속성을 지닌다. T. 이글턴, 『문학이론입문』(김명환 외역, 창작사, 1986), pp. 27-71.; 구모룡, 『한국문학비평과 유기론적 전통』, 『한국문학논총』 20호(한국문학회, 1997), pp. 263-281.; G. Garrard, *Ecocriticism*(Routledge, 2004), pp. 1-15.

5) 장소에 대한 내부성은 행동, 감정의 개입과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존적 내부성'은 난계 문학 후기에 발현되는 양상이다. 그는 대부분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소설을 통한 '대리적 내부성'을 추구하지만 그의 후기문학은 의식 차원의 이러한 거리를 극복한다. 장소에 대한 실존적 내부성에 대한 논의는 E.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김덕현 외역, 논형, 2005), pp. 118-119 참조.

2. 본론

2.1. 고향과 근대—문학적 전기

오영수(1909-1979)⁶⁾가 태어나 자란 곳은 울주군 언양면 동부리이다. 소위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수려한 풍광으로 둘러싸인 그의 고향은 경험의 원형으로 자리 잡는다. 그에게 자연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지향은 뚜렷하다. 유년에 대한 향수는 말할 것도 없고 도회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유기적 삶에 대한 염원은 계속된다. 그의 문학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을 지닌 공동체적인 경험(Erfahrung)과 도시에서의 우연하고 낮은 체험(Erlebnis)의 대비⁷⁾는 도드라져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그 만큼 유년기의 경험을 오랜 동안 반복한 이도 드물 것이다. 그는 E. 블로흐가 '농민의 도'라고 명명한 농촌 공동체의 희망 원리를 평생 견지한다. 그의 문학이 추구하는 조화와 동일성, 순박, 단순함의 기원은 바로 그의 고향이다. 자전적 소설인 「고향에 있을 무렵」에 의하면 식민지의 가난과 궁핍을 견뎌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고향의 자연이다. 그에게 자연은 미(美)와 선(善)의 근거이다. 대립과 폭력,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근대사회와 달리 자연에 융화된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아름답고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영수는 변화하고

6) 이재인은 오영수의 출생을 1914년으로 보고 있으나 일찍이 이호종이 당시 민적부를 통하여 확인 바로는 1909년 2월 11일이다. 또한 오영수의 장남인 오윤의 친구이자 오영수의 마지막 제자인 소설가 정형남의 증언도 필자가 확인한 바, 이호종의 고증과 일치한다. 이재인, 앞의 책, p. 163; 이호종, 「난계 오영수론—작가의 문학세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26집(부산대, 1989), p. 323.

7) 전통과 연관된 경험과 고립된 충격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체험의 구분은 발터 벤야민의 개념인데 이는 종합적 기억과 분석적 기억이라는 베르그송의 기억의 두 기능과 상응한다. W. 벤야민,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김영옥 외역, 길, 2010), p. 182.

8) 블로흐가 말한 '농민의 도'란 들에서 바라본 불 켜진 창, 밭갈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동이 끝난 후의 휴식 등 한정된 행복이 그 나름대로 유토피아적인 충족의 상징이자 형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F. 제임슨, 『변증법적 문학이론을 위하여』(창작과비평사, 1984), p. 131.

유동하는 근대에 대응하여 고향이라는 근원적이고 불변적인 자기 동질성을 유지하며 고향을 '실존의 귀환점'으로 간주한다.⁹⁾

오영수가 유년의 경험을 지속의 원리로 삼았다 하여 그가 소극적이거나 도피적인 인간형은 아니었다. 이는 그가 활동한 무대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¹⁰⁾ 오영수는 1926년 언양 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가난으로 진학이 어렵게 되자 면사무소에 나가 잡일을 하거나 우편국 사무원으로 취직하여 일을 한다. 이러한 오영수가 오사카로 간 것은 그의 나이 22세가 되던 1931년 8월이다. 니나와 중학교 속성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1933년에는 고향인 언양에서 면서기로 근무한다. 이 시기 그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싹트기 시작하여 『조선일보』 독자란에 시를 발표하기도 한다. 오영수가 재차 도쿄로 간 것은 1935년이다. 거기서 그는 일본대학에 적을 두면서 실내 장식사로 일하다 병을 얻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된다. 이후 언양과 예천 등에서 간판을 그리면서 생계를 꾸리다 1937년 다시 도쿄로 건너가 국민예술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1938년 귀국한다. 이처럼 오영수는 가난과 싸우면서 학업을 성취하는 일에 매진한다. 귀국 후 동래일신여학교 출신 김정선과 결혼하지만 1940년 어머니를 그 다음해 아버지를 여의게 되는 불행을 겪는다. 오영수는 1942년 대동아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만주 신경으로 가서 일본에서 장식사 직공으로 일하던 요내다를 만나 만주국 박람회¹¹⁾ 장식업자로 일하다 1943년 언양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청년 오영수의 삶은 질곡과 파란의 연속이다. 가난한 고향을 벗어나 근대 세계를 배우고자 하였으나 이미 세계는 전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와중에서 그는 다시 고향의 자연이 주는 위안과 행복을 간절하게 느꼈을 것이라 짐작된다.

9) 고향과 자기 동질성에 대한 논의는 전광석, 『고향』(문학과지성사, 1999), pp. 31-36. 참조.

10) 이하에 서술되는 오영수 전기는, 이재인(2000)과 이호종(1989) 그리고 소설가 정형남과의 면담을 통해 구성되었다.

11) 공식명칭은 '하얼빈(哈爾濱) 대박람회'로 194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개최되었다. 요시미 순야, 『박람회』(이태문 역, 논형, 2004), p. 322.

언양보통학교 교사이던 처가 처가가 있는 기장보통학교로 전근을 가면서 1943년 오영수는 동래 기장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일광면의 서기가 되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한다. 오영수 문학의 한 계기는 이 시기에 이뤄진다. 당시 일광에 김동리의 만형인 범부 김정설이 피신하고 있었던 것이다.¹²⁾ 여기서 그는 김동리와의 인연도 맺게 된다.¹³⁾ 김범부와 김동리를 오영수가 만난 것은 단순한 일로 처리될 수 없는 하나의 문학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김정설과 김동리에게서 오영수가 받은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는 후일 오영수가 김동리 등의 유기론 문학계보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¹⁴⁾ 해방 후 그가 부산 경남여고에서 교사가 되면서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 시기 그는 본격적으로 시를 발표한다. 이 시기 발표한 시는 모두 3편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는/숨 가쁜 心臟처럼/혈떡거리고/갈매기 미끄럽게/땀을 도는데/흰돛배
꼬박꼬박/조으며 돌아오고/머-리 리/희미-한 曲線을 그려/水平線이/하늘과
다다는 곳/紫灰色 노을 속에/흰 구름이 송이송이/羊 떼처럼/피여오르다 (『
바다』)¹⁵⁾

12) '해인사 사건'(1942-1943)으로 알려진 항일운동에 연루되어 범부는 1년간 옥고를 치르는데 전후 행적이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해방을 동래에서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오영수가 범부를 만난 것은 1944년 전후가 아닌가 한다. 범부 연구회 편, 『범부 김정설 연구』(대구프린팅, 2009), p. 59.

13) 이재인은 이 때 이뤄진 김동리와의 인연을 '귀인'과의 만남으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 이재인, 앞의 책, p. 176.

14) 사실 이는 추론에 의한 설명이다. 범부와 관련된 기록이나 문헌 정보가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범부와 오영수의 만남은 간과될 수 없는 사건이다. 당시 범부의 지성사적 위상이나 그가 강론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였고 이에 많은 후학들이 호응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다술사 광명학원 강사를 역임한(1937-1941) 신세대 문인 김동리와의 해후 또한 일회적인 만남 정도로 보긴 어렵다. 이는 한국전쟁기 임시수도 부산에서 오영수와 김동리의 우애로 이어지고 마침내 김동리에 의한 추천이라는, 준(準)사제관계로 발전한다. 그 동안 범부와 문학인의 영향관계 논의는 주로 김동리와 서정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범부연구회 편, 앞의 책, p. ix.

15) 『衆聲』1946년 9월호.

밤이면 鬼哭새 울고/鬼哭새 우는 밤일수록/山 골 아가는 일즉 잠이 든다/
 칩 년출에 새벽 이슬 밟고/사슴이 울면/山골자기는 자옥히 안개가 짙고/아가
 야/오늘도 날이 개인다//三四月 진종일/밭두렁에 빨기도 뽑고/절레순도 꺾어
 먹고/나비도 쫓고/때때로 山을 향해 고향 치는 것/아가야/山골 아가야/너 비
 록 발 벗고 누대기처럼/천하게 자랄지라도/그래도 너는 오직//하늘이 푸른대
 로 자라나거라/구름이 흰대로 자라나거라 (「山골아가」)¹⁶⁾

아침 끼니를 줍는/참새 자국이/활작 쓸어논 마당이/가날픈 무늬를 놓는다
 //담 그늘이/푸르도록 짙은 우물가/龍身마냥 늙은 石榴나무/비취빛 六月 하
 늘을 고이고/꽃은 너댓 송이/불기도 고와라//갑사 댕기/조심히 허리에 걸워
 꽃고/이웃 가시네 깊은 물동이에/파란 六月 하늘이-타는 듯 붉은 石榴꽃
 이-흔들리곤 유리처럼 바서지곤 다시/오무라 들다 (「六月 아침」)¹⁷⁾

『백민』에 발표한 시들의 선자는 박두진과 조지훈이다. 세 편의 시에서 그는 자연과의 교감이나 동심의 세계를 지향하는 경험의 유형을 보인다. 하지만 세 편 모두 시적 조사(措辭)의 수준이 높지 않다. 그래서인지 194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을 투고하며, 이때의 입선작 「남이와 옛장수」가 9월 김동리의 추천으로 『신천지』에 다시 발표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머루」가 당선작으로 뽑히게 되는데 이 역시 『신천지』에 게재된다. 「머루」는 오영수 문학의 실질적인 단초를 알리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하여 그는 평화로운 농촌공동체를 해체하는 근대주의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제시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나 전쟁이 가져올 파괴적 양상을 예고한 셈이다.

전시에 오영수는 청마 유치환과 함께 종군작가로 참전하고 종군을 마친 이후 학교에 복직한다. 1951년 부산중학으로 전근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 「갯마을」, 「코스모스와 소년」등을 발표하여 전쟁 상황에

16) 『白民』1948년 10월호.

17) 『白民』1949년 10월호.

대한 우회적인 비판과 더불어 그의 향토주의를 표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오영수 문학에서 반도시주의가 등장하는 것은 그의 서울 생활과 연관된다. 1953년 『현대문학』 창간과 더불어 시작된 그의 서울 생활은 많은 작품 발표와 문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도시문명에 대한 그의 회의를 심화시킨다. 『현대문학』 주간 조연현과의 불화로 『현대문학』을 떠나게 되는 것은 1966년이다. 이후 그는 건강이 나빠지는 등 서울 생활에 대한 회의를 거듭하다 1977년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로 귀향하게 된다. 귀향 후에 쓴 「잃어버린 도원」은 오영수 문학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오지에서 온 편지」(1972)에서 부각되고 있는 귀향의지는 이 작품에 이르러 유토피아에 대한 꿈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 작품으로 그는 문학적 생애를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79년 「특질고」는 운명적인 불행의 소산일 뿐이다. 「특질고」 이후 오영수는 「편지」를 끝으로 글쓰기를 마감하고 이 해 5월 병환으로 별세한다.

2.2. 유기론의 계보

1930년대 후반 이래 한국문학의 계보는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된다. 유물론(materialism)과 유기론(organology)과 현대론(modernism)이 그것들인데, 유물론은 사회주의의 토대가 되고 리얼리즘론을 형성하며 유기론은 전통사상에 바탕을 두면서 유물론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을 얻는다. 현대론은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미적 대응방식으로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주의가 성장하는 시기는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가 뿌리내리는 1930년대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근대 미학의 두 축인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자본주의와 파시즘에 대응하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경합관계는 중일전쟁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일제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라 부침한다. 특히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기의 일본사상의 유입과 동양주의는 문학의 새로운 한 축으로 부상한다. 이로써 식민지 시기 근대 문학은 세 가지 경향이 되

고 1940년대의 주류는 동양주의가 된다. 유기론은 이러한 동양주의와 연관된다.¹⁸⁾

주지하듯이 현대론은 식민적 근대에 대한 미적 저항이라는 지향을 지닌다. 아울러 서구 근대성을 보편으로 인식하는 자기화된 오리엔탈리즘(self-orientalism)의 분열적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가령 김기림처럼 전장으로 변한 유럽을 근대의 파산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¹⁹⁾ 이럴 경우 사회주의나 동양주의를 검토하거나 파시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유물론의 경우 식민적 자본주의 근대를 극복한다는 근대 기획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 식민과 제국 극복이라는 명제를 지닌 이것이 문학사의 주류가 된다. 하지만 파시즘의 대두로 유물론자들의 내외적 망명이 뒤따르게 되는데 여의치 않아 침묵하거나 전향하여 협력하는 일이 발생한다. 유기론의 동양주의가 차지하는 위상은 1920년대 중반 이래의 문화적 민족주의와 30년대 후반 등장한 신세대 문학 간의 미세한 차이를 지닌다. 또한 조선적인과 동양적인 것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내적 망명과 대동아공영론의 신체제 협력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게 된다.

오영수의 문학은 1930년대 후반 신세대 문학의 자장 안에서 시작한다. 신세대문학은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등으로 대표된다. 김동리와 서정주는 김범부의 풍류사상과 자연사상 그리고 국가사상[건국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조연현 또한 생의 문학 추구라는 점에서 김동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오영수의 도쿄 유학시절인 중일전쟁 전후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이며 사상사적으로도 전환기적 시기이다. 오영수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느꼈을 것이라 짐작하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뿐

18) 엄밀히 말하면 일제말의 주류는 신체제문학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책문학론으로 '이론'이라 할 수 없다. 유물론자나 현대론자 그리고 유기론자 가운데 많은 문인들이 신체제에 협조하는 신체제문학론자가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범부와 김동리, 서정주 등의 동방사상이 동양주의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가도 탐구의 대상이다. 아울러 이것이 해방 이후 문학사상의 한 축이 되는 과정이 주목되는데 오영수도 이러한 흐름 속에 존재한다.

19) 구모룡, 「김기림 재론」, 『현대문학이론연구』33권(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pp. 225-248.

만 아니라 대동아전쟁이 극에 이른 1944년경에 그가 김범부와 김동리와 교분을 나누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영수가 김범부의 강론에 접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김범부의 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긴 힘들지만 그의 풍류정신이 말하듯 기원의 전인사상을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서양의 관념론과 물질론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자연과 인간이 합치된 전인의 모델을 통하여 민족과 국민의 이상을 실현하려 한 바 있는데²⁰⁾, 그의 사상은 김동리에 의해 문학 장에 유입된다.

이 땅 문학의 근본이념이 구주근대문화적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고, 구주근대문화정신의 대동맥이 곧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고양 내지 그것의 구경 추구에 있다는 사실과, 이 땅의 경향문학이 '물질'이란 이념적 우상의 전제하에서 인간의 개성과 생명을 예속 내지 봉쇄시켰더라는 사실과를 아울러 생각할 때, 이 경향문학 퇴조 이후의 이 땅의 문단 신생면이 그러한 이념적 우상에의 예속으로부터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해방을 고조하며 나아가서는 그것의 구경적 의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도 그리 이해하기 곤란한 일은 아닐 줄 생각한다.²¹⁾

김동리 등의 신세대 문학은 유물론에 대한 비판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물론 비판은 유물론에 한정되지 않고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생의 구경적 형식”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유기론으로 보다 선명하게 제시되는 것은 해방공간이다.

우리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천지 사이에 태어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천

20) 범부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되고 있으며 그 선편을 쥐고 있는 최재목 교수 등의 범부연구회는 범부 사상 이해의 키워드로 1)풍류, 2)동방, 동방학, 3)음양론, 4)언어적 탐구를 들고 있다. 범부연구회 편, 앞의 책, pp. 18-21. 참조.

21)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문단 '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문장』 1940년 5월호, p. 84.

지 사이에 살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와 천지 사이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유기적 연관이 있다는 것과 및 이 '유기적 연관'에 관한 한 우리들에게는 공통된 운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우리의 공통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의 타개에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천지의 파편에 끄칠 따름이요, 우리가 천지의 분신임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체험을 갖지 않는 한 우리의 생은 천지에 동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이 공통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의 타개에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구경적 삶이라 부르는 것이다.²²⁾

김범부의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김동리의 유기론적 문학관은 중일전쟁 이후 세계전쟁 상황이라는 발생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오영수가 그보다 네 살 아래인 김동리(1913년생)를 만난 시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극도의 전쟁 상황이다. 이들이 현대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유물론을 비판함은 물론 자본주의 세계 전쟁을 통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유기론에 근거한 "구경적 삶"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은 해방공간에서 유물변증법과 차별되는 상생상극의 자연변증법에 기초한 "제3세계관"이라는 개념으로 부상한다.²³⁾ 오영수가 김동리 등의 유기론 계보라는 것²⁴⁾은 실질적인 등단작「머루」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오영수는 근대의 물질주의와 이데올로기가 유기적 삶을 파괴한다는 소설문법을 드러내고 있다.²⁵⁾

22) 김동리,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 『문학과 인간』(백민문화사, 1948). pp. 44-45.

23) 실제 제3의 이데올로기는 범부가 창안한 것이다. 이를 김동리가 이어받는데 그의 「본격문학과 제3세계관」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범부의 제3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범부연구회, 앞의 책, p. 1. 참조.

24) 문학제도의 측면에서도 김동리에 의해 오영수가 추천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오영수가 연상이지만 추천을 통해 김동리와 유사 사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25) 이는 범부의 자연사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잡지 『신천지』는 김동리와 오영수를 매개하는데 여기에 실린 김범부, 「조선문화의 성격」(『신천지』 통권 45호, 신천지사, 1950. 4)을 통하여 범부의 자연사상과 오영수의 연관성이 이해된다.

또한 한국전쟁 가운데 쓴 「갯마을」(1953)은 “징용”으로 시사되듯이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바깥의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이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2.3. 반근대주의와 자연의 이념

오영수 문학에 비판적인 견해들은 대부분 그가 사회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회피한다고 말한다. 유기론자 가운데 근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환멸의 계보에 속하는 오영수이기에 어쩌면 이러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김동리와 조연현 등의 생의 문학 혹은 유기론이 해방 공간의 대립적 담론 상황에서 우파의 논리로 고착되면서 이들 계보에 속한 오영수의 문학 또한 “국민문학”의 한 양상으로 비칠 소지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분법적 담론 상황²⁶⁾이 유기론에 가해질 수 있는 이론적, 해석적 가능성들을 폐색시키는 불행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유기론이 생태문학론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오영수의 유기적 세계 지향은 1950년대 전후 문학의 한 경향을 형성한다. 이것은 유기론이 미적 현대론과 접목되는 대목이다. 전쟁이라는 근대의 상황에 대한 미적 저항이란 매우 실존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문학에서 고석규와 같은 실존적 정신분석이 태동하는 것은 전후라는 상황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세대인 오영수에게 전쟁은 거둬들인 체험의 세계이다. 다시 말해서 실존적인 내면으로 밀고가기보다 대처적인 세계로 인식된다. 고석규와 같은 전후세대가 전장의 체험으로부터 실존을 구원할 길을 심연으로부터 모색하였다면²⁷⁾ 오영수의 경우 부정되어야 할

최재복·정다운 편, 『범부 김정설 단편선』(선인, 2009), pp. 19-30.

26) 이분법적 담론 상황은 주체(행위자)/반주체(적대자)의 관계를 미리 결정하게 한다.

세계와의 대립과 긴장이라는 본질주의적 경향을 낳는다. 이러한 본질주의적 경향은 유기론 계보의 한 특징이다. 유물론이 사회구성적이라면 유기론은 기원의 세계, 생명 본연, 순환하는 자연 등과 같은 본질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유기론이 현실에 나타나는 방식은 대체로 대응담론의 성격을 띤다.²⁸⁾ 이것은 전통적인 자연철학에 근거하면서 근대의 유물론이나 근대주의에 대응하는 담론으로 부상한다.

유물론과 유기론의 인식론적 차이는 매우 근본적이다. 유물론이 물질, 계급, 진보, 혁명 등 근본적인 변화를 내세울 때 유기론은 생명, 성장, 완성 등 점진적인 과정을 중시한다. 아울러 부분과 전체의 관계인식에서 둘의 대비는 뚜렷하다. 유물론이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유기론은 부분은 전체를 나타내는 내적 연관에 불과하다고 인식한다. 아울러 전자가 역사의 무대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인과법칙에 따라 파악된 법칙성의 신념체계라면 후자는 당면한 역사적 무대에서 전개되는 현상을 부수적인 환상으로 배격하면서 본질을 지향하는 신념체계라 할 수 있다.²⁹⁾ 김동리와 오영수의 세계인식 또한 후자에 가깝다. 그럼에도 김동리가 본질과 현실을 분리하는 선택을 통하여 영원성, 초월성을 추구하였다면 오영수는 본질에 상응하는 삶의 지평에 자기를 두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갈등하였다. 오영수와 김동리는 이러한 점에서 문학사적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나누어진다.

가령 근대에 대한 인식 문제에서도 그렇다. 김동리와 조연현 그리고 오영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근대주의를 전적으로 배격하는 근대 초극을 주창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결함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일방, 맑시즘 체계의 획일적 공식적 메카니즘을 지양하는 데서 새로운 고차원의 제3세계관을 확립하려는”³⁰⁾ 지향을 제시한

27) 구모룡, 『문학과 근대성의 경험』(좋은날, 1998), pp. 361-370.

28) K. 만하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임석진 역, 지학사, 1979), pp. 296-299.

29) 해방 공간에서 유물론과 유기론의 관련 양상에 대한 논의는 구모룡, 『해방 이후의 비평—비평과 국가』, 『한국근대문학연구』 19권(한국근대문학회, 2009), pp. 16-19에서 일부 가져왔음을 밝힌다.

김동리나 “「무정」이 우리의 근대예의 출발을 완성시킨 최초의 작품이라면 「황토기」는 우리의 근대의 종언을 완성시킨 최후의 작품”³¹⁾이라고 근대의 종언론을 화답한 조연현은 근대의 초극이라는 명제를 공유한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전개되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매우 추상적인 관념형태로 지속된다. 따라서 현실세계와 분리된 초월적인 가치체계로 남거나 어떤 매개도 없이 국가주의 이념과 결합하는 경향을 낳는다. 하지만 오영수는 반문명주의, 반도시주의라는 뚜렷한 지향으로 인하여 고뇌하는 주체를 형성한다. 고차적인 인간성 탐구를 목표로 한 김동리의 입장에서 오영수 문학은 “자연에 대한 예찬”, “고유의 소박성 중시”, “향촌에 대한 향수”로 문제적이지만 인간성 탐구는 “소극적”이라고 평가된다.³²⁾ 동일한 반근대주의를 지향하면서 둘의 문학적 행로가 나누어지는 대목이다.

오영수의 소설에는 근대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두리 소외된 삶과 본디 삶의 장소를 찾아가는 귀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많은 평자들이 “현실도피”라고 비판할 때 오영수는 “흙탕물 속에서 질식 직전의 고기가 한 줄기 맑은 물을 따라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걸 일러 소위 현실도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³³⁾라고 반문한다. 그만큼 그는 근대사회를 흙탕물에 가깝다고 인식한다. 이처럼 그는 반근대주의와 자연주의의 이념을 보인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자연주의 또한 많은 경우 근대에 포섭되고 만다. 근대 내부에서 미적 근대성을 획득하려는 모더니즘의 전략과 흡사하게 근대를 부정하는 자연이라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두 가지 자연이라는 지향이 있다. 그 하나가 근대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자연이라면 다른 하나는 자연을 단지 발견된 풍경으로 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비폭력적인 삶의 기획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분명 오영수의 자연주의는 전자와 후자가 겹쳐 있다. 특

30) 김동리, 「순수문학과 제3세계관」, 앞의 책, p. 129.

31) 조연현, 「문학과 인간」(세계문학사, 1949), p. 74.

32) 김동리, 「온정과 선의의 세계」, 『신문예』 1959년 1월호, pp. 32-34.

33) 오영수, 「대표작 자선자평」, 『문학사상』 1973년 1월호.

히 그의 후기 문학에서 후자의 지향은 뚜렷한데 1977년 귀향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연유가 여기에 있다.

2.4. 시적 비전과 내부성의 장소

한 대담에서 오영수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전에는 모파상을 많이 읽었어요. 내 생각엔 하나의 예술품을 담는 그릇으로선 장편보다 역시 단편이 더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긴 소설을 쓰지 않고 단편 소설만을 줄곧 발표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체호프를 자주 읽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해서 좋더군요. 체호프는 페이스소랄까 인생에 대해 상당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³⁴⁾ 단편쓰기에 끼친 모파상의 영향은 그 형식 원리를 넘어서지 않으나 체호프의 경우 상당히 내밀하게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다. 체호프의 서정적 문체와 감염의 언어들, 인물들의 상호소통하는 휴머니티와 이야기들의 서정적 통일체는 오영수의 감각에 닿았을 것이라 생각한다.³⁵⁾ 사실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영수의 소설은 시적 비전을 지닌 서정소설로 분류된다. 실제 그럴 것이 유기론을 기반으로 하는 글쓰기가 서정양식으로 기우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모든 부분들 간의 내적 연결과 조화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유기론의등장이 근대주의에 대한 대응이듯이 서정소설 또한 근대사회의 비인간화와 소외에 대한 문학적인 대처 방안이 된다.

오영수는 자신의 문학적 과정을 농어촌에서 취재한 서민의 서정, 도시 서민층의 인생문제, 전쟁으로 야기된 비극, 현대 기술 문명 비판 등³⁶⁾으로 요약한 바 있다. 자신이 처한 생활세계의 변화에 따라 그 제재가 달라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 흐르는 비전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모두 시적 비전

34) 오영수 대담취재, 「인정의 미학」, 『문학사상』 1973년 1월호.

35) 체호프의 문학세계에 대한 것은 D. P. 미르스키(이항재 역), 『러시아 문학사』(씨네스트, 2008), pp. 442-460. 참조.

36) 오영수 대담취재, 같은 글.

과 연관되는 것이다. 시적 비전은 조화와 화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희극(comedy)의 구성을 지닌다.³⁷⁾ 하지만 이러한 지향에 있어 사회적 조건에 의해 비극(tragedy)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의 과정일 수도 있다. 가령 「머루」와 같이 원초적인 통합의 공간이 외적 요인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부유하는 삶은 지속되는 고통의 과정이다. 그러나 「갯마을」처럼 다시 원형적 장소를 회복하는 끝내기(ending)도 가능한 것이다. 특히 후기 소설에서 보이는 귀향 모티프는 시적 비전의 희극구성을 잘 드러낸다. 가령 「잃어버린 도원」(1977)은 시적 비전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개울을 사이하고 이쪽저쪽에는 복숭아꽃이 온 골짜기를 싸뎠다시피 했다. 술에 취하듯 현기증이 나고 머리 속이 띵해오고 그리고 어느 먼 동굴을 빠져나오듯 한 둔한 음향.” 작가는 이러한 “무릉도원”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내 오관의 기능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나는 금배미 도원을 찾고야 말겠다.” 「잃어버린 도원」의 마지막 구절이다. 시적 비전의 비극과 희극이 동시에 이해되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오영수의 시적 비전은 사적 정서로 회귀하기보다 「잃어버린 도원」이 말하듯 역사철학적 명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그의 소설을 생태소설로 평가하게 한다. 그의 소설에 내재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론, 근대 문명에 내재한 폭력성 비판, 농적(農的) 삶에 기초한 순환적 가치의 존중 등은 벌써 그의 소설을 생태소설로 보기에 족한 색인들이다. 생태소설은 단순히 정의하자면 비극적인 생존 상태를 희극적인 상태로 전환시키려는 소설적 발상과 재현이다. 다시 말해서 근대의 자연지배와 인간지배의 고리를 끊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락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영수의 많은 소설들이 생태소설로 유분될 수 있을 것이다.

오영수의 소설을 생태소설로 읽는 일은 그의 문학을 오늘의 맥락에서

37) 유기론과 희극 구성의 연관성에 대한 것은 H. 하이트, 「메타역사」(천형균 역, 문학과학지성사, 1991) pp. 11-45. 참조.

재해석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것은 오영수의 귀향이 지니는 의미를 낙항이나 귀거래 정도로 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후기소설이 보인 귀향의식은 주목을 요한다. 말할 것도 없이 도시적인 삶에 대한 염증에 개인적 고통을 더한 만큼 그의 자발적 귀향이 낮은 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977년이라는, 개발과 산업의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얻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농적 순환 세계를 찾아 귀향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1977년 3월 15일—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도 내게는 과분해서 팔아버리고 조그마한 반 양옥으로 줄여 그 새 약값이며 입원비를 정리하면서 꿈에도 잊어보지 못한 환향(還鄕)을 결심했다. 서울에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시골에서 쓰는 글과 서울에서 쓰는 글이 또 다른 까닭도 없겠다. 시멘트와 베니아의 문화, 십년이 넘도록 한담에 살아오면서도 그 집 식구가 몇이며 빛을 하는 사람들인지조차 모르는 즉, 이웃이란 완전히 잃어버린 즉, 인간상실의 도시 생활에는 더 견디지 못해 나로서는 좀 위험하고 무사려하고 저돌적이고 대담한 혁명을 단행한 셈이었다. 서울서의 30년, 그 새 나는 옆눈 한 번 팔지 못했다. 처자식들이 굶고 떨고 더운 데만 전신경을 기울려 왔다.³⁸⁾

비록 이처럼 개인사적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오영수 문학은 자발적 귀향의 결행이라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그의 문학이 농업적 사회가 파탄에 이르고 있는 반생명적 현실에서 새롭게 읽혀야 할 까닭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영수의 귀향은 은둔자나 염세가의 장소 감각과 다르다. 존재의 내부성을 휘발시키는 도시화와 그것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전쟁 그리고 토지 매입과 개발로 인한 장소 파괴로부터 장소감을 회복하고 장소의 혼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이다. 그는 고향이라는 중심의 파괴에 대해서도 새로운 장소 창조라는 방식으로 대응한다.³⁹⁾

38) 오영수, 「낙항산고」, 『현대문학』, 1990년 5월.

고향/도시; 장소/공간; 경험/체험의 대립쌍은 오영수의 문학을 해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된다. 그의 문학적 역정은 고향이 부여한 영속적이고 신화적인 장소의 경험을 간직하면서 도시 공간의 낯섦과 비인간화를 견디면서 마침내 참된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에게 내부의 장소감은 창작의 원동력이다. 또한 그러한 장소에 대한 경험적 지향으로 그의 소설은 서정화될 뿐만 아니라 공동의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성을 담보한다.⁴⁰⁾ 이러한 점에서 그는 장소 파괴와 무장소성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대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가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21세기적 과제를 던지고 있는 작가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3. 결론

난계 오영수의 문학사상은 유년의 고향에 대한 기억과 일제말 대동아 전쟁(태평양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경험적 상황, 김범부와 김동리 등의 영향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김동리 등의 유기론의 계보에 속하는 그의 문학이 본격화되는 것은 1950년대이다. 식민과 전쟁을 경험한 그는 근대세계의 폭력에 대응하여 내재적인 경험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견지한다. 그에게 유년은 도시적인 삶을 대체하는 유기적 삶에 대한 기억의 장소로 자리한다. 이러한 반도시주의는 자주 비현실, 대리적 도피로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유기적 세계관을 생애 후기에 이르러 귀향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문학세계가 전체성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계기를 만든다.

오영수 문학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재해석의 계기를 맞고 있다. 첫째 그의 유기론적 문학사상은 생태주의 비평이라는 관점에서 재접근할 수

39) 오영수 소설에 대한 장소시학적 해석은 그를 달리할 과제이다.

40) 발터 벤야민에 의하면 공동체적 경험(Erfahrung)과 이야기는 상호연관성을 지닌다.

있다. 이로써 근대에 반립하는 자연주의가 모더니즘의 미적 근대성과 유사한 의식 형태라는 비판을 극복하게 되며 탈근대의 맥락을 얻는다. 둘째 그의 문학사적 위치에 대한 재구성 문제가 제기된다. 그의 문학은 유물론에 대립하는 유기론의 한계를 넘어서 21세기가 요청하는 생태미학으로 재맥락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사적 차원에서 김동리와 차별화는 단순하게 오영수 구하기가 아니라 그의 위상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실세계와 분리된 추상 이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구체적으로 개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오영수를 재인식하는 일은 요긴하다. 따라서 오영수 문학을 단순한 반근대주의, 시적 비전이라는 시야에 묶어 두지 않고 근대 극복이라는 테제와 결부시켜 다양하게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고향으로 표상되는 내부성의 장소라는 개념으로 그의 문학을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시적 비전과 공동체적인 경험과 이야기성과 연관되면서 오영수의 창작방법을 구성한다. 그런데 오영수 문학을 생태비평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그의 문학에 내재한 내부성의 장소 감각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일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다. 말할 것도 없이 오영수를 재맥락화하는 일이 그를 과장하는 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 동안 그의 위치가 객관화되지 못했다는 판단인데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제기의 일환이라 하겠다.

- 핵심어: 오영수, 유기론, 김동리, 반근대주의, 시적 비전, 내부성의 장소, 생태비평

<참고 문헌>

- 『오영수전집』, 현대서적, 1968.
- 『白民』 1948년 10월호.
- 『白民』 1949년 10월호.
- 『衆聲』 946년 9월호.
- 구모룡, 「김기림 재론」, 『현대문학이론연구』33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pp.225~248.
- _____, 「한국문학비평과 유기론적 전통」, 『한국문학논총』20호, 한국문학회, 1997, pp.263~281.
- _____, 「해방 이후의 비평—비평과 국가」, 『한국근대문학연구』19권, 한국근대문학회, 2009, pp.16~19.
- _____, 『문학과 근대성의 경험』, 좋은날, 1998, pp.361~370.
- 김동리,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 『문학과 인간』, 백민문화사, 1948, pp.44~129.
- _____, 「신세대의 정신—문단 ‘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문장』 1940년 5월호, p.84.
- _____, 「은정과 선의의 세계」, 『신문예』 1959년 1월호, pp.32~34.
- 김영화, 「오영수의 소설연구」, 『제주대논문집』24집, 제주대, 1984.
- 김윤식, 『김윤식 소설론집』, 동서문화사, 1991, p.20.
- 김인호, 「오영수 소설에 나타난 ‘향수’의 미학」, 『한민족어문학』39호, 한민족어문학회, 2001.
- 문경주, 「오영수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 범부연구회 편, 『범부 김정설 연구』, 대구프린팅, 2009.
- 변혜정, 「오영수 소설의 생태의식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3.
- 송하섭, 『한국현대소설의 서정성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81.
- 오영수 대담취재, 「인정의 미학」, 『문학사상』 1973년 1월호.

- 오영수, 「낙향산고」, 『현대문학』 1990년 5월.
- , 「대표작 자선자평」, 『문학사상』 1973년 1월호.
- 오태호, 「오영수 소설에 나타난 서정적 리얼리즘 연구」, 『국제어문』 48호, 국제어문학회, 2010.
- 우찬제, 「'총알'과 '머루'의 상호텍스트성」, 『문학과 환경』 8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09.
- 이강연, 「오영수연구」, 『국어국문학연구』, 청구대, 1961.
- 이재인, 『오영수문학연구』, 문예출판사, 2000, pp.163~176.
- 이호종, 「난계 오영수론—작가의 문학세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6집, 부산대, 1989, p.323.
- 임명진, 「작가 오영수의 생태적 상상력」, 『한국언어문학』 70호, 한국언어문학학회, 2009.
- 조연현, 『문학과 인간』, 세계문학사, 1949, p.74.
- 전광석, 「고향」, 문학과지성사, 1999, pp.31~36.
- 최재목·정다운 편, 『범부 김정설 단편집』, 선인, 2009.
- 요시미 순야, 『박람회』, 이태문 역, 논형, 2004, p.322.
- D. P. 미르스키, 『러시아 문학사』, 이항재 역, 씨네스트, 2008.
- E.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역, 논형, 2005, pp.118~119.
- F. 제임슨, 『변증법적 문학기론을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984, p.131.
- H. 하이트, 『메타역사』, 천형균 역, 문학과지성사, 1991, pp.11~45.
- K. 만하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임석진 역, 지학사, 1979, pp.296~299.
- T. 이글턴, 『문학기론입문』, 김명환 외역, 창작사, 1986, pp.21~71.
- W. 벤야민, 『보들레르의 몇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김영옥 외역, 길, 2010, p.182.
- G. Garrard, *Ecocriticism*, Routledge, 2004, pp.1~15.

<Abstract>

A Study on Nangye(蘭溪) Oh Young Soo's
Organological Idea of Literature

Gu Mo-ryong

Previous studies about Oh Young Soo(1909-1979) mostly focused on the lyric characteristics and naturalism of his novels. Recently, there's a tendency to read his writings from the viewpoint of ecological criticism. This suggests that the novelist is being researched in a new direction other than b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Oh Young Soo's literature.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examined how the novelist started his career as a literary man and how his idea of literature was formed,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genealogy. Underlying the novelist's literature were so-called the Greater East Asia War(the Pacific War) and his own view of the world which was opposed to the foresaid violent image of the world. Anti-modernism, anti-urbanism, homeland, nature and life were the main themes of his literature. Ideologically, Oh Young Soo belonged to the genealogy of organicism that was pursued by Kim Dong Ri, Cho Yeon Hyeon and so on. But unlike them, Oh Young Soo practiced non-separation between literature and life by returning to the farm. This is because his literature became what was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ecological criticism.

Anti-modernism found in Oh Young Soo's literature was to criticize modernity by means of the beauty of nature. In this sense, his literature might be criticized as an epigone of aesthetic modernity. But

since he tried to embody his own agricultural view of the world, his literature can be reevaluated as having led ecologism. In association, much attention may be paid to the novelist's inner sense of place suggested in his literal works. Contrast between homeland and city, place and space or experience and practice is an effective way to explain Oh Young Soo's literature. His literature oriented a place that could arouse an inner sense of homeland or existence. In other words, his literature oriented and tried to maintain so-called the world of collective experience. Keeping in mind a certain permanent, mythical place he mentally experienced in the homeland, Oh Young Soo provided a way to another place that could be truly meaningful while enduring unfamiliarity and non-humanity he faced in the city. or Oh Young Soo, the power to create literal works was closely related with his own inner sense of places of insideness. On conclusion, his novels orient lyricism about the collective experience of place and stories that share such experience.

- key words: Oh Young Soo, organology, Kim Dong Ri, anti-modernism, poetic vision, places of insideness, ecocriticism.

* 이 논문은 2010년 7월 14일 투고되었고, 8월 1일 심사 완료되어 8월 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